

교육현장 불합리 개선에 '총력'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 열어 운영방향 등 논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7일 도교육청 8층 감사협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난해 9월 위촉된

제4기 시민감사관 7명과 감사담당공무원 4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18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2019년 시민감사관 운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감사관들은 지난해 실지 감사를 통해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확대,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성 강사 활용 방안 마련 등 장애인식개

선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의 사유별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및 공무원 인식변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놴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반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행사를 기획하고,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민감사관 실지감사는 오는 4월과 10월 각각 10일간 진

행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교육현장에 반영,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27일 '2019년 양성평등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성평등 문화증진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양성평등 확산 사업 확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27일 '2019년 양성평등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하여 양성평등사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운애 센터장,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이수인 소장, 같이교육연수원 김명훈 대표 등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들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혜계층 확대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북도의 종합 성평등 지수는 상위로 올라섰지만 교육훈련 부분이 13위, 성평등 문화 정보 부분이 14위에 머물고 있다.(2017년 지역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이에, 자문단은 여성인재 육성 및 활용의 시급함을 공유하는 한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생애주기별 표적고객 특성에 맞는 성평등 의식조성 신규 프로그램 추진 방법의 다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센터에서는 올해 조손돌봄 조부모를 대상으로 '바른 양성평등교육'과 '영유아 교사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신설해, '세상을 바꾸는 세상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차세대 리더스쿨을 확대·진행하여 청년 여성의 인생설계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3,800여명 대상 11개 분야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4) 또는 홈페이지(www.jwcc.re.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세계 3% 전문가로 인정

호원대 권기준 산학협력단장 세계 최고권위 인명사전 등재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권기준 산학협력단장(호텔의식조리학과 교수)이 세계 최고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9년 판에 호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최초로 등재됐다.



권기준 산학협력단장은 호텔의식조리학과 교수로서 호텔관광의식분야 중 탄자니아 젊은층들의 K-culture에 대한 인식 관련 논문을 SSCI급 유명저널에 게재해 우수성을 검증받았으며, 국내외 유명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에 등재되게 되었다.

한편,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부터 인명사전을 발간하기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인명기관으로 매년 정치/사회/종교/과학/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 세계 3%에 해당하는 전문가 5만명을 선정해 약력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으며, 미국인명정보기관 (ABI: AmericanBiographical Institute), 영국 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2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교수 정년 기념식이 열렸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꿈 펼쳐 나가는 제2의 출발점"

전북대 교수 19명, 영광의 정년 기념식 거행 김동원 총장, 카펜터스 곡 들려주며 '동행' 의미 강조

"우리가 선택할 수많은 길 위에서 배우고, 또 달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걷고, 길 따라 세워진 표지판을 보며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합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니다"

2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는 열린 교수 정년 기념식에서 때 아닌 팝송 한 곡이 흘러나왔다. 1970년 카펜터스가 부른 '워브 온리 저스트 비건(We've Only Just Begun)'이라는 곡으로, 결혼식을 마친 젊은 부부가 황혼을 향해 오 래토록 함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들 모두 어리

둥절해 했지만 김동원 총장의 가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총장은 기념사 도중 이 곡을 들려주며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정년 교수들에게 축하와 함께 '우리'라는 의미의 동행을 강조했다.

간호대 고성희 교수를 비롯해 공대 진 정(건축공학)·권오봉(컴퓨터공학)·박순철(컴퓨터공학), 농생대 이왕류(농생물학)·박승제(생물산업기계공학), 사범대 송정수·역학, 생활대 손희숙(식품영양학), 예술대 정성환·홍정표(산업디자인학), 의대 양두현·한영진(의학과), 자연대 윤창주(반도체과학기

술학)·선병윤·정국현(생명과화학부), 김종진(수학과), 치대 장기완(치의학과) 교수 등 19명의 교수가 2월말로 정년을 맞았다.

이날 정년기념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정년퇴임 교수 및 가족, 교직원 및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강단을 떠나는 교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동원 총장은 송덕사를 통해 "교수님들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꿈과 이상을 펼쳐 나가는 제2의 출발점"이라며 "강단을 떠나시더라도 평생 쌓아오신 업적을 더욱 빛나게 가꾸셔서 보람 있는 일 더욱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 설명회 열어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학년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8일 2층 강당에서 일반고 96교 교감, 총괄업무담당자, 행정실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계획과 운영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2015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고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과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일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주 교사(남원 서진여고)의 특강 '수업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를 시작으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계획 안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공통 재점, 교육과정 다양화, 미래인재 양성 학교선택 프로그램, 대학 연계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운영 ▲학생 배움 중심 수업 개선 ▲기초학력 향상 및 맞춤형 대안교육 ▲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 위탁 등에 52억4,830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로 일반고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학생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